

중문단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요구 반력

KTO “도로 관리비 내는데 부담금까지는 과도해” 서귀포시 “부과 기준 도로 관리주체와 상관 없어”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KTO)가 내년부터 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에게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서귀포시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KTO가 지난 달 공문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검토 결과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도내에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되는 시설물을 소

유한 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제주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2400여동의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900여동이다. 부과액은 25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KTO가 부담금 면제를 요청한 이유는 차량이 오가는 중문단지 도로를 KTO 재원과 입주업체가 낸 분담

금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내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봤기 때문이다.

KTO 관계자는 “입주업체가 낸 분담금 등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담금까지 내는 것은 업체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 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교통량 감축에 나서면 최대 90%까지 부담금을 감감 받는 프로그램에 입주업체들이 적극 동참해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문단지에 있는 국제회의 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에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전문회의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제주도가 제정한 조례에는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ICC제주의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당분간 그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ICC제주에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까지 입주해 있어 교통량이 많이 유발된다”면서 “형평성과 제도 취지,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부담금 감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물고기 가득 걸린 그물 9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에서 어민들이 물고기가 가득 걸린 그물을 안간힘을 쓰며 끌어올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오는 29일 강정마을 출발

올해도 제주에서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취지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29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내달 3일까지 남원~표선~성산~김녕~조천~제주시청까지 108.7km를 걷게 된다. 31일과 행사 마지막 날에는 성산국민체육센터와 제주시청에서 중간문화제, 평화문화제도 열린다. 김현석기자

소규모 학교 교복구매 시름 던다 학교지원센터에서 공동구매후 보급 추진

신입생이 10~15명에 불과해 교복 구매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학교들이 공동 구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의 2020학년도 업무지원 분야로 중학교 교복구매 지원 업무와 기간제교원 채용지원 업무를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 현장 밀착 지원 조직으로 학교에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통합 처리해 교사 등 학교현장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지원센터는 올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유치원 방과후과정 ▷어린이 놀이시설 및 학교위생관리를 포함해 총 6개 학교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거 놓여온 소규모 학교들이 마트

에서 직접 구매하던 초등돌봄교실 및 유치원방과후과정 간식 구매지원 업무는 학교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시범 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교육자치추진단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0학년도 추가 지원 업무로 중학교 교복구매 지원과 기간제교원 채용지원 업무를 추가 발굴했다. 2019학년도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학교는 교부행정지원 일반직(또는 행정실무원) 미배치교 중 20학교 미만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소규모 중학교를 포함해 제주시 21개교(초 16·중 5)와 서귀포시 20개교(초 14·중 6)이다.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및 교직원 행정업무를 경감해 교육 본연의 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시 체납관리단 체납세금 11억 징수

제주시가 지난 4개월간 체납된 세금 11억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7일 공식 출범한 제주형 체납관리단이 본격 활동 4개월 만에 체납액 11억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체납관리가 미비했던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5만510명 68억원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16명(실태조사 9명·전화확려 5명·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명)을 채용, 6월까지 체납자 9798가구를 방문하고 1만447건의 전화확려를 통해 5226대의 번호판 영치실적을 올렸다.

또 복지 취약계층 발굴도 함께 추진해 취약계층 1건을 발굴, 복지부서에 인계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6월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0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체납액 182억원보다 43% 감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7·8월 폭염기는 제외하고 9월 2일부터 재가동 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체납액 일소와 더불어 복지연계 발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신난다~”... 각급학교 여름방학 시작

12일 효돈중 시작으로 최소 18일 최대 54일간

제주도내 각급 학교가 빠르면 12일부터 방학 선언과 함께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효돈중학교의 방학 선언을 시작으로 도내 학교들이 쭉게는 18일, 길게는 54일 동안의 여름방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광곡초등학교 외 2개교가 19일(방학선언 18일)을 시작으로 최소 18일(신촌초등학교)에서 최

대 54일(서귀북초, 서귀중앙초) 동안 실시한다. 중학교는 효돈중학교가 13일(방학선언 12일)부터 시작해 최소 25일(한라중)에서 최대 46일(효돈중) 동안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대기고등학교가 17일(방학선언 16일)부터 시작해 최소 18일(삼성여고, 서귀포여고)에서 최대 33일(대기고) 동안 실시한다.

특수학교는 서귀포포성학교가 18일(방학선언 17일)부터 방학을 시작

하며, 최소 28일(제주영지학교)에서 최대 35일(서귀포포성학교) 동안 진행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경험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거나 학교 및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제주대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제주대학교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IP주소 추적방지 등 보안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했다.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염미경)는 갑질 및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의 접근성을 높여 인권침해 없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에 익명제보도 가능한 ‘온라인 신고 창구’(http://www.jejunu.ac.kr/help/

rights)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 창구는 대학 구성원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인권침해 신고 유형은 ▷인격권 침해 ▷신체적 안전 침해 ▷평등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및 근로권 침해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민원 ▷2차 피해 등이다. 표성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19년 (사)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회장 취임식

이정엽
제13대 취임회장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 7월에 중소기업인의 융합과 화합의 결속을 다지고 한걸음 더 높고 넓게 나아가기 위해 “연합회 회장·취임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전과 융합, 100년 기업창조”

● 일시 2019년 7월 12일 18:30 ●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영주홀

▶ 취임회장(이정엽) : 010-5858-0182, ▶ 사무총장(김용식) : 010-9295-5735, ▶ 사무국 : 064-751-2030

박광열
제12대 이임회장

부회장

부영숙	박순량	고기범	김승일	허상우	김학현	정영욱	황광배	사무총장 김용식	중소기업이사 김만호

감사

김명진	김정

● 고 문인세영, 오정희, 김영태, 정인철, 조경호

● 자문위원
강성균도의원, 고윤호도의원, 이연봉변호사, 허용진변호사, 강진애변호사, 김기성지방분권제주도민대표

● 법제이사 강영관 ● 정책이사 손희진 ● 업무이사 현은호
● 상조이사 오문식 ● 체육이사 김양훈 ● 의전이사 현학삼
● 사업이사 김미리 ● 교육연수이사 양병훈 ● 융합이사 김현
● 지역사회여성이사 김연희

● 제주교류회총무 김양훈 ● 제주여성CEO교류회총무 김연실
● 세계로교류회총무 고경남 ● 백록교류회총무 이철수
● 서귀포교류회총무 김문민 ● 비전CEO교류회총무 고경남
● 한라여성CEO교류회총무 전효정 ● 삼다교류회총무 강경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